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10장 국가의 정치체제와 각 인간상 I

◆ 1교시 정치체제 분류의 특징

▲ 이상 국가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지난 시간까지는 4권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각각의 덕목들,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가 5권부터 7권까지는 건너뛰는 것이 되는데요. 5권부터 7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4권 끝나면서 정의로운 나라가 어떤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 했고요. 가능하면 뛰어난 어떤 나라를 구성하고서,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건강과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건강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 정의라고 규정을 했지요. 그런 점에서 정의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추구할 만하다는 것을 4권에서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 글라우콘 자신은 그 정도면 이미 정의가, 그 자체로서 정의가 추구할만한 것인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정의한 나라나 부정의한 사람들을 이야기 하고서 그것과 비교해서 정의로운 나라 혹은 정의로운 사람과 어느 쪽이 나은지, 이것을 살펴보자고 이야기해서 살펴보려는 와중에,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던져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그것이 5권부터 7권까지 좀 긴 논의를 하게 되지요.

5권부터 7권까지 긴 논의에서, 물론 그 앞에 여자도 통치자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5권에서 7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철학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철학자가 왜 통치자가 되어야만 훌륭한 나라가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나서, 하는 와중에 철학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요. ‘좋은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유명한 동굴 비유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7권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재밌는 얘기가 502쪽, 503쪽을 보시면, 541 a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나라에서 열 살 이상 된 사람들을 모두 시골로 보내되, 그들의 아이들은 오늘날 그 부모들의 것을 이들 자신도 지니게 되는 그 성격들에서 벗어난 상태로 넘겨받아서, 이들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법률 안에서 양육할 것이네.” 쉽게 말해서, 이 나라가 성립 가능하긴 한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면, 열 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다 시골로 쫓아내 버리고, 열 살 밑의 아이들만 데려다 놓고 개네들만 키우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열 살 이상의 부모들은 다 시골로 보낸다. 이것은 해석자에 따라서는 시골로 보낸다는 얘기가 다 죽여 버린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시골로 보내면 자식들 빼앗기고서 부모가 시골에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와서 전복을 할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다 죽여 버린다는 얘기를 부드럽게 한 것에 불과하다. 어

찌되었든지 간에, 애들을 다 모아다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한 성립가능하지 않다는 정도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 정치체제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인간상

어찌되었든지 간에 8권에 들어가서, 4권 끝나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부정의한 나라들, 부정의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과 정의로운 사람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8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작업은 8권을 거쳐서 9권 끝까지 가게 되는데요. 남은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8권, 9권 이야기를 주로 보게 될 겁니다.

8권 넘어가서 이제까지 합의 되었던 이야기를 죽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한 나라들의 네 가지 정체를 이야기 하는데요, 544 b, 544 c 넘어가서. 네 가지, 이것은 국가편에 대해서 흔히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509쪽 544 c 같은 곳을 보시면 “네 가지 정체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려 했었는지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선, 첫 번째로는 라코니아식 정체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크레타 및 라코니아, 라코니아라는 것은 스파르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파르타식 정체. 스파르타식의 정체는 나중에 가서 명예정체라고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에 과두정체. 역시 버금가는 것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은 과두정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민주정체이고. 그 다음에 참주정체지요. 이 네 가지가 전부다 부정의한 정체들로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정의로운 정체로 최선자 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자 정체라는 것이 플라톤이 지금까지, 혹은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 계속 묘사해왔던 것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순서대로 이것이 가장 정의로운 나라이고, 전부다 부정의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의한 사람의 네 가지 종류가 이야기 되는데요. 그 다음에 8권, 9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명예정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이야기 하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야기 하고요. 과두정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어떠한지. 민주정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어떻게. 참주정체는 어떻게,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 『정치가』 편의 정치체제 분류와의 차이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정치체제를 다섯 가지로 구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체제를 구별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정치체제를 구성했다, 분류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요. 플라톤 자신의 경우에도 예컨대 『정치가』라고 있지요, 번역되어 있는. 『정치가』에서만 봐도 정치체제를 분류하는데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해요.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 『정치가』에서는 일단 귀족정체라 하지요. 처음에는 왕정하고, 그 다음에 귀족정,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 다섯 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만, 이 민주정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분류는, 『정치가』에서 나오는 분류는 보다 분류법이 명확합니다. 왕정이라는 것은

1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귀족정은 소수 통치, 민주정은 다수 통치이지요. 과두정은 다시 소수 통치, 참주정은 역시 또 1인 통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왕정과 참주정은 1인 통치이고, 귀족정과 과두정은 소수 통치이고요. 민주정은 다수 통치인데, 실제로 민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는데, 위쪽은 법에 따른 통치, 아래쪽은 법에 따르지 않는 통치. 그래서 혼자서 다스리는데, 그것이 어떤 법에 따라서 잘 다스리는 것은 왕정이 되는 것이고, 혼자서 제 멋대로 다스리는 것은 참주정이 되는 것이고요. 소수가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귀족정, 소수가 제 멋대로 다스리게 되면 과두정. 다수가 다스리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경우와 제 멋대로 다스리는 경우, 이렇게 6가지 분류를 하게 되요. 이때 분류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통치 체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이지요. 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 멋대로 하는 것인가. 혼자냐, 다수냐, 소수냐, 이런 분류법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체제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은 이 순서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민주정,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민주정이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참주정은 여기에 대응 되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위의 과두정과 명예정, 둘 다 말하자면, 최선자 정체까지, 전부 다 어떤 점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뭔지 분명치가 않단 말이에요. 과두정이란 것은 민주 정부의 위쪽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밑에 있지요. 그 다음에 귀족정이라는 말이 아리스토크라티아란 말인데, 이것이 최선자 정체라는 말과 실제로 그리스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것과 연결된다고 보게 되면... 하여튼 간에 분류법이 서로 안 맞아요. 굉장히 안 맞는데, 왜 이런 안 맞는 결과가 생겼는가를 보면, 『정치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 분류법이 보다 정치철학적인 분류법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권력관계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냐, 여럿이냐, 다수냐.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종류의 권력 관계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권력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정치가』에서조차도 그런 권력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 자체는 그리스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관계에 따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예정체 같은 것은 원래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어에. 플라톤이, 혹은 소크라테스가 명예정체에 해당되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분류법은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익숙한 분류법이기 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분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 『국가』 편 정치체제 분류의 근거 - 권력관계가 아닌 영혼의 지향점

그럼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이런 방식으로 분류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분류를 했느냐. 사실 이것은 『국가』 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분류 방법은 그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른 어떤 분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류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관계에 따른 분류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바, 혹은 적어도 그 나라의 통치자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방식의 분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류법이 왜 『국가』 편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에 대비하는 인간들, 아까 말씀드

리기를, 이것 각각에 대응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정체적 인간, 최선자 정체적 인간이란 것은 정의로운 인간이고요. 과두정체적 인간, 민주정체적 인간, 참주정체적 인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각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방식으로 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대응하는 방식의 어떤 정치체제들을 묘사한 것이 이 다섯 가지 분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철학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정치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소 『국가』 편에 있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국가』 편의 소크라테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 2교시 명예정체와 과두정체

▲ 각 정치체제의 성립과정 -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의 이행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4가지 부정의한 정체를 이야기 하고 나서,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명예정체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8권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전부 다, 최선자 정체가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게 되면 명예정체가 되고, 명예정체가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게 되면 과두정체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면 민주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것이 생겼다, 이것이 생겼다, 이것이 생겼다, 이것이 생겼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하는 인간도, 정의로운 인간의 아들이 명예정체적인 인간이 되고, 명예정체적 인간의 아들이 과두정체적 인간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세대에 따라서 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8권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명예정체적인 정체가 생겨날 수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면 좀 복잡한 수학 얘기들이 나와요. 513쪽 이하 514, 515쪽 넘어가면, 거기 주에 이상한 수도 있고, 제곱수, 완전수, 어찌고저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수학적 얘기들은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복잡한 이야기들, 신화를 막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 할 것은, 다른 얘기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최선자 정체에서 명예정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최선자 정체라는 것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 어떤 완전한 나라를 구상한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나라라는 조건은 무엇이나 하면, 그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완전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한 나라, 명예정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이론에 있어서 약간 문젯거리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보다 좀 나쁜 나라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좋은 나라에서 나쁜 나라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이 좋은 나라가 뭔가 좀 부족한 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나쁘게 될 여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명예정체가 생겨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전의 5권부터 7권까지 얘기했던 그림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수학, 이상한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513쪽 같은 곳을 보시면, 스테파노스 번호로 546 d 같은 곳을 보시면, “그대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교육한 사람들이 비록 현명하기는 하나”,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인류의 좋은 출산과 불임의 시기를 감각과 함께 계산에 의해서 적중하는 데는 조금도 나을게 없어서, 이들 또한 이를 놓치게 되어서 언젠가는 아이들을 낳지 않아야 할 때에...” 그 뒤에 어찌고저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철학자들도 신적인 인간들이지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실수를 하느냐 하면, 감각과 관련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에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이 뭐냐, 나쁜 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완벽한 앎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언제 낳아야지 애가 좋은 애가 태어날지, 5

권 같은 곳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 낳을 때에도 낳을 잡아서 좋은 날짜 잡고, 혈통 좋은 애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무슨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앎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 최선자 정체에 해당하는 인간상은 누구인가 - 철학자 혹은 정의로운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명예정체에 해당되는 것은 명예정체적인 인간,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과두정체적인 인간, 뭐 이렇게 쪽 될 텐데요. 최선자 정체에 해당되는 인간이 과연 철학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최선자 정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철학자, 그러니까 좋음에 대한 이데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한다면, 철학자는 더 이상 타락해서 부정의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정의가 진정한 앎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참된 믿음에만 기초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깨어질 수 있는 종류의 어떤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4권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직 철학자 이런 이야기들을 안했어요. 그때 4권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혼의 각 부분과 영혼 전체에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앎이라는 것이 만약에 철학자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잃어버릴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앎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믿음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4권에서 등장하는 정의로운 사람은 진정한 앎, 철학적인 진정한 앎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면, 각 순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 행동이 정말 가장 훌륭한 행동인지에 대한 이유까지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정의로운 사람은 삶의 이런 저런, 순간순간의 정의로운, 가장 훌륭한 행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만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행동을 이 순간에 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다 알아야만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6권, 7권에 나오는 ‘좋은 이데아’, 이런 것 까지 다 알고 있는 철학자가 되어야만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도 어쩌면, 이진 제 해석이 좀 들어간 것입니까만,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철학자가 다스리는 훌륭한 나라에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거든요. 굉장히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고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면 그 사람도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

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훌륭한 지도자, 예를 들어 철학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예컨대 지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맥락에서 어떤 상황이 있겠지요.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나, 아니냐를 따질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거짓말을 절대로 할 유혹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맥락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누가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 치거나 이런 유혹도 받지 않고, 그냥 정의롭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왜 도대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누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히 충분한 대답을 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태아를 다 보고서 속속들이 이 유들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삶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선자 정체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철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자라는 것은 진정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정의로운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 진정한 삶과 참된 믿음의 차이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정의로운 사람이, 최선자 정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삶과 참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나 하면, 진정한 삶은 내가 그 삶을 가지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삶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참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삶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주 혹독한 시련이라든지, 굉장히 나한테 닦선 상황이 닦쳤을 때는,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일인지, 정의로운 일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것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까 평상시에는 정의롭게 살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닦쳤을 때, 뭐 예컨대 전쟁이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 다 죽고, 특히 옆 사람이 내 부모도 죽이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접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어떤 가혹한 시련이 닦쳤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땐, 과연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들은 적이 없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참된 믿음을 유지해 주는 것은, 이따가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영혼의 세 부분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잘 조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특수한 맥락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잘못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을 가지지 못하고 참된 믿음만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런 사람은 실수 할 수

있고 실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앎을 가진 철학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국가』 편의 틀 내에서는. 하지만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 참된 믿음에 기초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 국가가 이를 수 있는 한계점 - 타락의 여지를 내포한 불완전한 국가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나라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앎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나라가 어떤 앎을 가진다는 얘기 자체도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4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나라가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가, 하고 얘기 했을 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나라가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할지, 국가가 국가로서 내려야 할 결정들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앎을 가질 만큼의 지혜를 국가에게도 적용시켜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 4권에서 이야기했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소 독단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앎을 가지려면, 영혼의 세 부분이 더 이상 완전히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영혼의 세 부분이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앎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그리고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말하자면 ‘좋은 이데아’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영혼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전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개인의 영혼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권에서 영혼이 사실은 이 부분, 저 부분,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논증을 제시하는데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국가의 성원들도 많고, 계급도 여러 순으로 나뉘어져 있고, 통치자도 있고, 피 통치자도 있고, 이런데 그 국가가 완벽한 의미에서 아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혼에 있어서 진정한 앎을 갖게 되는 조건이 완벽하게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단계,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처음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철학자가 다다를 수 있는 경지까지를 국가가 다다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국가에게 있어서 제일 높은 단계는 단순히 부정의하지 않은 어떤 정의로운 국가가 되면, 그것이 국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 그리고 그 단계는 어떤 참된 믿음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4권에서 묘사되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 영혼의 각 부분의 좋은 것이 무엇이고 영혼 전체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런 앓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 계급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국가 전체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통치자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 그 정도의 상태면 정의로운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앓에 따라서 국가 각 성원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예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의 국가는 영원히 정의로운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면, 부정의한 나라로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나라. 그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란 것이 예컨대 철학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통치자가 생겨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가 546에서부터 547정도 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546, 547에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아주 아무런 흠이 없는 통치자 계급이 생겨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547에 보면, 어떤 종류의 내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47 b 보시면, 517쪽입니다만, “일단 내분이 생기게 되면 통치자들 중에서 철과 청동의 성분을 갖는 두 부류는 각기 돈벌이와 토지, 이런 것들, 가옥, 금은의 소유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와 달리 황금 및 은의 성분을 갖는 두 부류는 본성상 가난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부유해서 훌륭한 옛날의 체제 쪽으로 이끈다. 그래서 다투다가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금, 은, 동이라는 자질을 이야기하고요, 이 금, 은, 동은… 물론 훌륭한 나라에서는 금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요. 은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전사들이 되는 것이고, 동은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훌륭한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훌륭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은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동은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서 보자면, 이것(금)이 이성애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것(은)이 기개(은)적인 부분, 이것(동)이 욕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 명예정체적 국가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통치자 계급이나 뭐 그런 곳에서 못난 자식이 생겨났어요. 금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 자식이 태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이성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이쪽으로 끄는 힘도 있고, 이 욕구적인 부분으로 끄는 힘도 있고, 양쪽으로 끄는 힘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중간인 어떤 은 정도에 가서, 말하자면 양쪽으로 이쪽저쪽 끄는 힘이 있으니까, 중간 정도에 가서 정지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때의 통치자들은, 517쪽 끝에 스테파노스 번호로 547 d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최선자 정체를 흉내 내지만, 다른 면에서는 과두정체를 흉내 내게 되고, 자신의 독특한 점도 갖는다.” 독특한 점이란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18쪽을 보시면, 이 사람들도, 이 명예정체에서도 이들은, 적어도 통치자와 전사들은 사적인 소유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좋은 나라에서도… 조금 넘어가 보시면, 507쪽 잠깐만 보시면요, 8권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스테파노스 번호 543 b, 543 c 보시면 여기서는 훌륭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543 b부터 보시면, “통치자들이 임명 되면 군인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서, 개인적인 것은 갖지 않고 모두를 위한 공동의 것들만 갖고…” 그러니까 사적 소유물을 갖지 않고요. c라고 된 곳 옆을 보시면 “수호 업무에 대한 연간 생계비를 수호에 대한 보수로서 다른 시민들에게 받고, 자신

들과 함께 다른 시민들을 보살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런 소유를 갖지 않고요. 그 소유에 대한, 통치에 대한 보수처럼 생계비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나라에서는 생산자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만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518쪽으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명예정체도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돈벌이를 멀리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관직에 앉지는 않고요. 성향 상 전쟁 취향인 사람들이 통치 계급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548 a 그 밑을 잠깐 보시면 과두정체 사람들이 그렇듯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좀 있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사사롭게 소유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래 사사로운 창고, 비밀스럽게 금과 은을 모시는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재물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의 물건 쓰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쓰는 것은 실컷 쓰고, 자기 돈은 안 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명예정체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뭐 스테파노스 번호로 약 두 페이지도 채 안될 정도로 간단한데, 간단하게 여기서 드러난 것은 이들의 통치자들은 명예를 중시한다. 명예를 중시하는데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돈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특별히 지혜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정도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명예정체적인 나라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의 스파르타 같은 곳을 이런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 명예정체적 인간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명예정체적인 실제 정체의 모습보다는 명예정체적인 그 인간의 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548 d부터 명예정체적인 인간이 어떤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519쪽이요. 이 정체에 일치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떤 사람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느냐를 얘기했을 때, 549 c, 521쪽 위를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면,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훌륭한 아버지의 어린 아들일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훌륭한데, 나라는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은 나라니까, 훌륭한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일종의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불평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훌륭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가 욕먹고, 주위에서 욕하고,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주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는지, 그런 것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래서 550 a, 522쪽, 다음 페이지예요. a, b 중간쯤을 보시면. “이 젊은이가 이런 모든 것을 듣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도 듣고, 또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남들의 것과 비교해보게 되면 그때는 이들 양쪽에 끌리게 된다. 아버지는 그의 영혼에 있어서 이성적인 부분을 조정하며 키우지만, 다른 사람들은 욕구적인 부분과 격정적인 부분을 조장하며 키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규제를 가짐으로써, 양쪽에 끌리게 되어서 중간에 오게 되고, 자신에 있어서 주도권을 영혼의 중간 부분, 즉 이기기를 좋아하며 격정적인 부분에 넘겨주게 되고, 도도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성적인 부분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예요. 명예정체적인 인간이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기계적인 부분이나,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성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이성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인 부분으로 좀 끌리는, 영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성적인 부분으로 끌리는 힘을 아버지가 바깥에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던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깐 그 중간쯤에 가서, 영혼을 주도하는 주도권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과두정체적 국가

그 다음에 과두 정치적인 정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의 주도권, 원래 우리가 영혼의 지배와 욕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적어도 과두정체적인 인간까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명예정체적인 인간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두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두정체라는 것은 평가 재산에 근거한 정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금권정치라고 번역하기도, 영어의 올리가르키(oligarchy)라는 것을 우리말로 과두정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금권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원적으로는 올리가르키라는 말이 올리가르키아, 소수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리가르키라고 얘기할 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통치한다는 면에서 금권정, 혹은 과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평가 재산에 근거한 정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처음에 정체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산액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통치를 한다고 얘기 하는데. 551 d 정도 보시면, 525쪽입니다. 제가 숫자 얘기 할 때 둘 다 500대가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뒤에 a, b 이렇게 묶이면 스테파노스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555쪽, 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박종현 선생님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525쪽 d라고 된 곳 밑을 보시면, “이런 나라는 필연적으로 하나 아닌 두 나라, 즉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자들의 나라로.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하다기보다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552 a, b 넘어가는 중간쯤을 보시면,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팔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것을 사서 갖는 것이 허용 되는 것”, 그게 이 과두정에서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 35번을 보시면, 526쪽에,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물려받은 원래 배분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많은 폴리스에서, 도시 국가에서 불법이나, 불명예스러운 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산 같은 것은 팔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말이지요. 그것까지 다 팔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면, 마르크스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과두정체에서는 이런 일을 왜 허용하게 되느냐, 명예정체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허용을 하게 되느냐. 통치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갖고 싶어

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들 팔고 저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피 통치자들의 재산들, 그 생산수단들 까지도 뺏어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수단도 판매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판매 하는 것이 되면 그 사람 것도 그 사람들이 당장, 요즘 다른 것 사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팔게 되면 생산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산수단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진 통치자들이 모든 소유물을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금지되지가 않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요. 지금 이런 부분 얘기들은 실제로 좀, 뭐 2500년 전 얘기입니다만, 자본주의 탄생을 그리는 그런 것과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거지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두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정치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과두정체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냥 명예정체에서 부를 더, 그러니까 명예를 사랑한 사람들이 돈벌이를 사랑한 사람들이 되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직을 갖게 되고, 자산액을 상정해서 그것이 관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부자들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소유물 전체, 이런 것도 다 팔아 치워 버리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 버리고. 부자들은 그런 것을 사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뭐 그 정도의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과두정체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부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영혼의 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요. 과두정체적인 인간, 그 다음 민주정체적인 인간, 참주정체적인 인간까지 다 얘기 해야지 사실은 영혼의 지배, 욕구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과두정체적인 인간 까지만 이야기해도, 영혼의 각 부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